

남기일 감독 “외국인 선수 전력보강 만족” 도민들 생활체육 참여율 높았다

제주Utd, 자와다·켄자바예프·제르소 연이은 영입 선수구성 이번 주 내로 마무리... 팀의 질 향상 기대

최근 연이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 계약 소식을 전한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제주 유나이티드가 남은 한 차례도 머지않아 채울 계획이다.

제주 선수단이 훈련 중인 서귀포에서 17일 만난 남기일 감독(사진)은 “외국인 선수 구성을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할 것 같다”며 “공격 쪽의 검증된 선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승격에 성공했으나 외국인 선수의 덕은 크게 보지 못했던 제주는 14일 폴란드 연맹별 대표 출신의 공격수 오스카 자와다를 시작으로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을 잇달아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원어 기대주 이슬름 켄자바예프, 미국프로축구(MLS) 무대에서 뛰었던 원어 제르소도 입국해 자가 격리를 하며 합류를 기다리고 있다.

남 감독은 “시간을 두고 고민한 끝에 우리 팀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

다고 생각한 선수들로 택했다. 들어오면 조금씩 팀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의 영입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계약한 선수들은 K리그 무대는 처음 나서는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자가 격리도 거쳐야 해 개막이 임박해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아직 남은 한 자리를 채울 선수를 포함해 외국인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어 제 기량을 완전히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 감독은 “외국인 선수 영입이 더해 처음에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지만, 서두르다고 될 일 아니고 여유를 갖게 됐다”며 “합류가 늦어지는 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다른 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우리만의 속도로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선수단은 즐름 서귀포에서 훈련을 이어오고 있다. 전지 훈련의 분위기를 내고자 14일부터는 별도의 숙소에서 생활하며 클럽하우스를 오가고 있다.

남 감독은 “다른 곳으로 가서 다양한 상대와 경기도 해봐야 하는데, 제주에만 계속 있다 보니 리그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장소



변화로 리그 개막에 맞춰 긴장감을 느끼고 팀을 끌어 올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선수들이 원하는 정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전술적이라든가 여러모로 잘 따라와 주고 있다”면서 “지난 시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는 다음 달 1일 성남 FC와의 원정 경기로 1부리그 복귀전을 치른다. 남 감독 입장에서는 친정팀과의 맞대결이기도 하다.

남 감독은 “성남에서 힘들지만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말았던 모든 팀이 그렇지만 성남도 정성을 들여 만든 팀”이라며 “성남과의 대결 자체를 의식하기보다는 1부리그에 돌아와 어떻게 다른 팀을 상대하며 적응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세트피스 연습 등도 많이 하고, 선수들이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살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막까지 두 차례 연습경기를 치르며 선수들의 성장과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연습뉴스

문체부 실태 조사 결과 작년 제주 73.5% 전년보다 26.1%p 상승... 전국은 60.1%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최근 1년간 주 1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한 비율을 뜻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73.5%로 전국 60.1%보다 높았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2019년과 비교해 전국 참여율은 6.5%p 감소한 반면 제주지역은 26.1%p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73.5%)가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72.9%), 경북(71.7%) 순이었다.

도체육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생활체육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이같은 높은 생활체육 참여율을 보인 요인으로 각종 사업 운영 시 강화된 방역수칙을 마련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활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체육회는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취약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저소

독층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정, 어르신 단계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신규 사업으로 유소년 생활체육프로그램(베드민턴, 음악줄넘기, 볼링, 뉴스포츠)을 통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함께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10%할인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도를 월 2만원으로 상향 지원해 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와 지역리그 운영, 스포츠클럽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부평구 도체육회 회장은 “변화된 스포츠 환경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활동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운동 콘텐츠도 함께 지도 병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은지기자 eioh@halla.com

스트라이커 진성욱 올해도 제주Utd서 뛰다

“팀에 믿음주는 선수 될 것”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는 스트라이커 진성욱(27)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성욱은 2017시즌을 앞두고 인천 유나이티드를 떠나 제주 유니폼을 입고, 2017시즌 K리그1 총 29경기에 출전해 5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친 바 있다. 제7회 EAFF E-1 챔피언십 남자 국가대표에 발탁돼 2017년 12월 12일 북한과의 2차전에서 A매치 데뷔전까지 치렀다.

지난해 전역한 후 제주에 합류해 2020시즌 K리그2 총 8경기에 출전해 5골 2도움을 기록하며 제주의 K리그2 우승과 1부리그 승격을 이끌었다.

진성욱은 “전역 복귀 후 5골을 넣었지만 여전히 목마르다. 제주가 1부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겠다”면서 “팀에 믿음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아무도 나를 못박아 17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노우에서 펼쳐진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서 음바베가 수비 두명 사이를 비집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 리오넬 메시의 페널티킥 선제공로 풀려가던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베의 헤트릭을 앞세워 4-1 대역전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파리 생제르맹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다. 연합뉴스

제주도체육회 법인 설립 본격화

준비위원회 구성 18일 첫 회의 오는 6월 설립 대기 완료 계획

지난해 민선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안정적인 조직 기반 구축을 위한 법인 설립을 본격화했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달 구성된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18일 도체육회 소회의실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로는 강경문 도체육회 부회장, 부두찬 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시윤 도체육진흥과장과 고경준 변호사, 송추강 제주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등 5명이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사항과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설치(구성) 운영사항 보고를 비롯해 위원장 선출과 정관(안)을 심의하게 된다.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를 법인화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법인 설립은 현재 임의단체 지위의 지방체육회를 법적 법인화해 책임성과 투명성,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체육회는 앞으로 정관 작성 후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은 뒤 창립총회 개최와 관할 지자체에 법인인가를 득하고 법에 따른 법인 설립 완료 시점인 오는 6월 8일까지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체육회는 법인 설립 시 법적 지위 확보로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공감 스페셜 11:55 솔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20 KBS 아침 뉴스타임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코모닝 대한민국 리아브 2부 9:15 코모닝 대한민국 리아브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자구촌 뉴스 11:00 언녕? 나야(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쁜 날 10:45 사진 정리 사바스 폰클렌징(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불새 2020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뽀뽀뽀 뽀로로 8:00 땀땀 땀 9:40 유디유치원 10:30 한국기행 12:10 비즈나 리뷰 플러스 14:45 도리도리 영어나라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30 땀땀 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19:30 자이언티 핑TV 19:45 다큐 잇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생로병사의 비밀(재) 13:50 지구를 지키는 20가짜재인 13:55 나의 살던 고향은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14:45 민타의 신기한 여행 15:00 폭 잡아 15:30 열린채널 16:00 사시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인강극장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정공부채산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 뭐래도(재) 17:00 뽀뽀TV 2 17:15 캐치 티니핑 17:30 농탄 에는 따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단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채널 12: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13:20 푸라기 식사교실 16:0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쁜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다류에세이 그사람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맛있는 광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뉴스타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살게 알짜배기(재)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달기의 아침뉴스 9:00 그대랑이제 김성훈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천영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팀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준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한국인의 밤상 20:00 제주 제2공항 건설 천변어촌조사 발표 20:05 한국인의 밤상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다류 인사이드 22:50 더 라이브 23:30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특선다큐 완벽한 행성 지구 21:30 언녕? 나야 22:10 언녕? 나야 22:40 수이산장 1부 23:15 수이산장 2부 23:50 스포츠 하이리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생방송 연극특집 720+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오마이 빛나는 밤 1부 22:00 오마이 빛나는 밤 2부 22:40 사색의 중동체 스미다 23:4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스페셜	18:50 클리! NOW 제주 스페셜 19:20 행복충전 해피타임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맛있는 광장 1부 21:35 맛있는 광장 2부 22:05 맛있는 광장 3부 22:35 킷하루스2 허든룸 은밀한 이야기(재) 23:50 점수! 무비월드 스페셜	7:00 KCTV 뉴스 8:00 방송콘텐츠경연대회 수상작 8:30 인터넷 제주공감 9:40 KCTV 다큐스페셜 12:30 제주도의 가치 재발견 13:10 공공예술지원 프로젝트 ‘넌어, 연결하다’ 14:30 인터넷 제주공감 16:10 UHD 특선 17:10 불특정인 인 제주 20:00 방송콘텐츠경연대회수상작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8일

김종상 저단(星)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일이 있으면 기쁘고 없는 자는 돈 문제로 걱정이 생긴다. 48년 가정사 문제로 불화 또는 형제간에 논쟁이 생기니 먼저 나서지 말고 관망하라. 60년 각종 인허가 계약에 관계된 일은 순탄하다. 72년 아이디어가 뛰어나거나 재주가 있어 직장인은 인정받는다. 84년 분실 도난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잘 관리할 것.

42년 신경이 예민하고 불화가 찾아온다. 인내가 필요하다. 54년 문서, 이동 변화에서는 유리하나 부부 간에는 갈등이나 불화가 온다. 66년 손재주나 언변으로는 인정을 받는다. 78년 생각보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 서둘러 마라. 90년 일이 필요시 주변에 요청하면 가능하고 먹을 것이 생긴다.

37년 약속이나 초대받을 일이 생긴다. 49년 자녀의 일로 고민, 전문가와 상담도 때문 희망이 된다. 61년 소송 또는 문서와 관계된 일은 불리하니 함부로 진행하지 마라. 73년 이벤트나 연구분야, 연수원, 레크레이션 분야는 분주함이 많아진다. 85년 뒷사람에게 질타가 오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재가를 기다려라.

43년 일이 호전되고 안정이 되니 본인의 일에 충실하라. 55년 매출이 오르거나 등업, 창업하려 한다. 67년 가정에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거나 어려움이 생긴다. 79년 행운이 복수에 있다. 오늘의 색은 빨간색. 91년 조경이나 헬스 또는 수영 등으로 건강 유지.

38년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주변과 어울려야 한다. 50년 가까우수록 예의와 신의가 중요하니 친하다고 막말을 하면 신뢰가 추락. 62년 손으로 하는 임종은 분주하고 이익이 따른다. 74년 아트·에니메이션·화장업은 웃음을 잃지마라. 86년 중매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44년 답답하던 일이 풀리거나 거래상사가 있다. 56년 단체인수나 크기훈련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 모임에서 인정을 받기도 한다. 68년 반가운 소식이 답답하던 일이 해소되니 교육인적자원을 활용하라. 80년 의는 상의하면 답을 찾으나 혼자 해결은 속수무책. 92년 친구, 동료에게 상의할 일이 생긴다.

39년 생각은 많은데 결정하기를 망설인다. 신중한 결정이 인정받는다. 51년 매매, 문서계약이 성사가 되고 금전적 이익이 있다. 63년 출장이나 연수 등에 참여하게 될 일이 생긴다. 75년 답답한 일 또는 오랜 기간 안 풀리던 일이 긍정적 조짐을 보인다. 87년 직장인은 승급에 관한 일이 생기고 기쁜 소식이 있다.

45년 결단을 내리고 때를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57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상대와 대화 시 부드러운 미소로 행하라. 69년 이성교제나 소개가 생기니 행운은 통쾌하다. 81년 전문직이나 자격을 요하는 분야에서 인정받는다. 93년 친구에 대한 근심이나 소식이 생긴다.

40년 당노로 고생할 수 있으니 걷는 운동이 필요. 52년 직장인에게 승진 또는 기쁜 소식이 있거나 중매가 주어지기도 한다. 64년 마음에 정리가 되어가고 다소 안정을 찾는다. 76년 평생교육을 통해 정보 활용 또는 강좌를 통한 정보공유. 88년 진념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면 성공을 보장받는다.

41년 자녀로 인한 걱정이나 직업으로 고민한다. 53년 토목·비금속·안경·컴퓨터·통신분야 매출 증가. 65년 함께 대화나 음식을 나눠먹을 일이 생긴다. 교제가 생기기도. 77년 때론 가족이나 친구가 그림다. 먼저 연락이 취하면 상대가 응해 준다. 89년 아는 길도 물어가는 심정으로 뒷사람과 상의하라.

46년 유사업종과 관련된 분야와 미팅, 회의주선. 58년 거절을 당하거나 일이 중도에 멈출 수 있으니 중매가 주어지기도 한다. 70년 상대가 나의 노력을 믿고 인정해주시니 이럴때 일수록 책임완수가 필요. 82년 전 문서식이 필요함을 느끼니 늘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 94년 분주하며 현실적인 이익이 있다.

47년 끝까지 노력을 필요로 하며 긍정적 생각만이 안정되도록 할 수 있다. 59년 경험과 노하우를 어려움 극복한다. 71년 부부간에는 논쟁이나 다툼이 있거나 이성간 교제가 가까워 질 수 있다. 83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과 실천 필요. 95년 자기 주관이 필요한 날이며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